

음양오행론의 발생과 그 응용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尹暢烈*

陰陽五行論의發生和應用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尹暢烈

當今時代, 正進入到東西方文明形成相互間的融合共濟, 并探索着以相生的關係進行發展的轉折期.

東洋思想通過觀察整體的直觀與統合的思維方法, 說明了宇宙變化規律和人間的各種難解之謎, 從而創造出了偉大的陰陽五行論思想. 但是隨着‘西勢東漸’的潮流, 身為東洋人而教育和思維方法已逐步西洋化, 未能繼承我們的偉大傳統, 反被西洋的科學文明和物質文明所吸收.

然而, 西洋的任何一種哲學及科學, 沒有一個能夠以一種原理來說明宇宙和人間及萬物的變化, 即沒有一個能與東洋的陰陽五行論相匹敵的哲學和理論. 包括陰陽五行論在內, 東洋思想以其很強的說服力, 隨着科學進步, 其價值開始重新被認識. 以電腦和數字革命為代表的現代文明, 亦是根據陰陽論的二進法為基礎而創造出來的. 愛因斯坦, 湯川秀樹, 尼克勃尔, 卡布羅等, 均對東洋思想的偉大性加以認可, 并從此得到靈感, 取得偉大的科學成果.

陰陽五行論是不可磨滅的絕對真理. 不管對其理論價值及本質無知的人, 怎樣給與評價, 但是這一理論是一個解釋自然和人間本質及說明其變化的理論, 決不會喪失其真正的價值.

Key Words: 陰陽, 五行

1. 서론

음양오행이란 단어를 들으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생각이 떠오를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낡고 오래된 동양고대의 진부한 이론이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다.

더구나 지금시대에 있어 음양오행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주를 보거나 술수를 공부하는 사람들과 한의학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되고 있는데 사주라거나 술수라는 것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미신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음양 오행은 더더욱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필자는 이제까지 음양오행의 역사와 사상에 관하여 나온 많은 논문을 접해 보았지만 단순히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음양오행의 본질에 대해서 기술한 논문은 별로 접해보지 못하였다. 이것은 지금시대에 음양오행론의 본질과 근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양의 역사에 있어서 음양오행설 옳으나 그르나라는 질문을 수용하지 않고 절대 진리로써 대접받았던 장구한 시대가 존재하고 있었다.¹⁾

지금 우리는 서양일변도의 교육만을 받아왔으며 동양의 사상과 정신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한의학계에 있어서도 음양오행론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피상적이고 상투적인 음양오행론만을 공부하여 음양오행론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린지가 오래되었다. 이에

* 교신저자: 윤창열,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042) 280-2601, yooney@dju.ac.kr

1) 김홍경 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서울. 신지서원. 1993. p. 4.

저자는 음양오행론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진리로서 동서양의 학문을 조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본고를 발표하는 바이다.

2. 음양오행론의 기원

양계초는 “춘추전국시대 이전에는 음양이라든가 오행이라는 말이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그 의미도 지극히 평범하였으며 또 이 두가지 말이 함께 연용된 적도 없었고 모든 경전과 공자·목자·맹자·순자·한비자 등 모든 사상가들도 그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없었으니 그 시원은 대개 연나라와 제나라 방사들에게서 비롯되어 추연, 동중서 유향등에 의하여 이론화되었다”고 하면서 음양오행설을 폄하하고 그 시원을 전국말에서 한나라 초기로 잡고 있다.²⁾

그러나 서경의 甘誓에 “有扈氏가 威侮五行하며 怠棄三正이라”고 하여 五行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오고 서경의 洪範에는 九疇의 첫째 조목으로 “一五行은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이오 四曰金 이오 五曰土 니라. 水曰潤下 이오 火曰炎上 이오 木曰曲直 이오 金曰從革 이오 土爰稼穡 이니라 潤下는 作鹹하고 炎上은 作苦하고 曲直은 作酸하고 從革은 作辛하고 稼穡은 作甘 이니라”³⁾하여 五行의 순서와 五行의 특징, 그리고 五味의 생성에 대하여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감서는 禹의 아들 啓가 有扈氏와 싸울때 甘 땅에서 군중들에게 맹서한 글이니 서기전 23세기에 성립된 글이고 홍범은 기자가 주무왕에게 전해준 글이니 서기전 12세기에 쓰여진 글이다. 이것만 보아도 음양오행의 역사가 유구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음양오행론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필자는 하도와 낙서에서 음양오행론이 처음 기원하였다고 생각한다. 《尚書·顧命》에는 “太玉과 夷玉

과 天球와 河圖는 在東序라”하여 西周의 成王(B.C. 11세기) 당시에 이미 이 河圖가 국가의 보물로써 중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論語·子罕》에는 “鳳鳥不至하며 河不出圖하니 吾已矣夫인저”라 한 孔子의 말이 실려 있고 역시 孔子가 지은 《周易·繫辭傳》에는 “河出圖하며 洛出書어늘 聖人則之라”는 말이 기술되어 있다. 이는 河圖와 洛書가 孔子以前부터 크게 중시되어 왔음을 밝히고 있으며 孔子도 그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도서관이란 용어도 하도낙서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리고 종래로부터 伏羲氏가 河圖를 그리고 나서 이에 근거하여 八卦를 劃하시고 禹임금이 洛書를 그리고 나서 이를 法받아 洪範九疇를 陳하였다는說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劉歆曰 伏羲氏가 繼天而王하실새 受河圖而劃之하시니 八卦是也오 禹治洪水하실새 賜洛書어시늘 法而陳之하시니 九疇是也라)⁴⁾

주역의 이론은 철저하게 음양론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하였다.

주역을 구성하는 8괘와 64괘가 모두 양효(—)와 음효(--)로 구성 되어있고 건곤과 삼남삼녀등이 모두 음양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양에서 주역은 진리를 담고 있는 최고의 경전으로 존송되어 왔고 이 바탕에 음양이 자리하고 있으니 음양론은 절대적 진리로서 이미 자리 매김되어 있었던 것이다.

3. 음양오행론의 발생

음양오행론은 최초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을까. 결론을 먼저 말하면 천지의 변화질서를 파악하여 인간이 올바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이론이 성립하였다. 광대무변한 우주속에서 인간은 자연이 규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내는 근본틀이 천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하늘과 땅은 진리의

2) 김홍경 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서울, 신지서원, 1993, p. 43.

3) 강호등심교, 금고문상서전역, 중국, 귀주인민출판사, 1991, p. 235.

4) 윤창열, 의철학, 대전, 주민출판사, 2005, pp. 83-84.

원형이자 만물생명의 근원인 것이다. 하늘은 생명을 내려주고 땅은 생명을 낳고 길러준다. 대자연속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도 하늘과 땅의 거대한 품속을 한시도 떠날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과 만물의 부모는 천지인 것이다. 이 하늘과 땅을 대행하는 실체가 해와 달이다. 해는 빛을 발산하여 낮의 변화를 주도하고 달은 해의 빛을 받아 밤의 변화를 주도한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질서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질서가 반복되는 가운데서 만물은 탄생 소멸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기 위하여 음양오행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용어를 통해 천지의 변화질서는 비로소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하였으며 음양 오행은 자연의 이법을 설명하는 용어가 되는 것이다.

주역 기사전에서 “一陰一陽之謂道”라 하여 한번陰이 되었다가 한번陽이 되는 음양의 운동이 우주의 근본법칙이며 자연의 질서라 하였다.

황제내경 소문 천원기대론편에서는 “夫五運陰陽者是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不可不通乎此也”⁵⁾라 하였다. 이는 “오운(오행)과 음양이라는 것은 천지가 변화하는 길이요(天地之道) 만사만물을 분석하고 귀납하는 강령(萬物之綱紀)이며 만사만물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근원(變化之父母)이며 만사만물이 나고 죽는 근본이고 시작점(生殺之本始)이며 천변만화하는 각종운동 현상의 원동력(神明之府也)이니 이러한 이치를 가히 관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뜻이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천지는 만물의 부모인데 음양운동의 주체가 되고 일월은 천지를 대행하여 실질적으로 음양운동을 창조하는 실체가 되므로 “天地者是陰陽之全體也 日月者是陰陽之大用也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천지의 정신을 상징하는 건곤에 대해서는 “乾坤者是陰陽之本源也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소문 보명전행론에서는 “人生有形에 不離陰陽이라”하고 또 “人은 以天地之氣로 生하고 四時之法으로 成이라” 하였으며 다시 “夫人生於地에 縣命於天하니 天地合氣를 命之曰人이라”고 하여 사람은 음양(天地)과 오행(四時)의 법칙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

4. 음양오행론의 한의학적 운용

음양오행학설이 한의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한의학의 최고 원전인 황제내경에서 음양오행론을 바탕으로 인체의 조직구조와 생리, 병리, 진단 질병의 예방과 치료 약리등을 모두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우리가 음양오행론을 바탕으로 우리의 의학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필자는 얼마전 음양오행론을 바탕으로 五味의 五臟所入에 관한 논문을 한편 작성한 적이 있다.

내경에서 酸味는 入肝하고 苦味는 入心하고 甘味는 入脾하고 辛味는 入肺하고 鹹味는 入腎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酸味는 수렴작용을 하니 發出하는 木의 기운을 가진 肝과는 작용이 반대가 되고 苦味는 下降작용을 하니 分散하는 火의 기운을 가진 心과는 작용이 상반되고 甘味入脾는 同氣相求로써 味와 臟의 기능이 일치하고 辛味는 발산작용을 하니 肅降작용을 하는 肺의 기능과는 상반이 되고 鹹味는 軟堅작용을 하니 凝固 統一하는 水의 기능을 하는 腎臟과는 반대작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陰陽學說의 묘미로 肝이 기능적으로는 木의 作用을 하니 간의 실체는 金化되어 가니 천간에서 乙木이 乙庚化金하고 지지에서 卯木이 卯酉陽明燥金이 되어 자신은 金으로 바뀌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더 쉽게 설명하면 나무가 밀등은 딱딱해져 가면서 가지는 쪽쪽 커나가는 원리로 자신은 金化 陰化되어 가면서 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氣血중에서 陰에 속하는 血이 肝에 저장되

5) 산동중의학원등교석. 황제내경소문교석 하책.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2. p. 841.

고 肝은 시간이 지날수록 硬化되어가는 것이니 간의 實質은 金을 이루고 간의 기능은 木의 作用을 하여 金과 木이 相反相成하는 원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로 心臟은 기능은 火이지만 실질은 苦味에 의해 水를 이루어(氣味論에서 味는 陰으로 물질을 이루니 陰成形이다) 水와 火가 相反相成하고 肺는 숙강작용을 하지만 肺의 實質은 신축성이 좋아 木의 象을 가지고 있으니 辛味が 肺에 들어가 신축성이 좋은 肺의 實質을 만드니 木과 金이 相反相成하고 腎은 오행에서 水로 응고작용을 하지만(신장의 모습이 콩의 모습을 이룬것은 응고하는 모습이 외부로 나타난 것이다) 鹹味が 들어가 이것을 풀어주고 속을 유연하게 해주니 肝에서 癸水가 癸火로 바뀌고 子에서 子水가 子火로 바뀌는 이치로 火와 水가 相反相成하는 이치이다.

5. 음양오행론의 절대성

필자는 앞에서 천지는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고 만물을 낳는 父母라고 하였다. 소문 보명전형론에서도 “人能應四時者是 天地爲之父母오 知萬物者是 謂之天子라”고 하였다. 이 뜻은 “사람이 능히 사시음양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면 하늘의 陽氣와 땅의 陰精이 사람을 養育하므로 천지가 바로 사람의 부모라고 말할 수 있고 만물의 생장 수장하는 이치를 알 수 있는 자는 만물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그 사람을 하늘의 아들이라고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양학에서 인간을 위시한 만물은 천지의 축소판인 소천지요 소우주라고 한다. 천지가 음양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소우주인 인간과 만물도 음양오행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天地와 만물이 동일한 원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宋學에서는 天地가 一太極이요 物物이 一太極이라”고 하였다. 태극은 음양이 합일된 일원론적인 관철인 것으로 이것은 본체를 이루고 작용은 음양과 오행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주역은 천지만물의 이치를 음양이라는 부호를 가

지고 도식화한 것이다. 천지의 정신을 乾坤이라고 부른다. 乾坤은 주역의 8괘와 64괘에 있어서 父母가 되는 괘이다. 기본 팔괘에서 삼남삼녀가 乾坤에서 나오고 62괘가 모두 乾坤에서 나오니 62괘는 모두 건곤의 자식인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 받으니 62괘 모두 건곤에 뿌리를 둔 陰陽의 원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서양의 학문에 전체와 부분의 상관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프랙탈(fractal)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이론은 1975년 프랑스 사람인 만델브로(Mandelbrot)가 발표한 이론으로 자기유사성(self-similarity)과 순환성(반복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어떤 물질 등이 무한히 세분되어 나가더라도 그 부분속에는 전체의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 만물속에 천지의 모습이 간직되어 있다는 동양의 소천지 사상은 프랙탈 이론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라이프니쯔가 우주는 무수한 단자로 이루어져 있고 개개의 단자 속에는 하나의 완전한 우주가 구현되어 있다는 단자론(Monadology)도 우주의 프랙탈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동양에서 우주의 구조와 변화를 음양오행론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프랙탈 이론과 단자론의 이론에 의거해 보면 만물의 구조와 변화는 모두 음양오행론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6. 문명의 흐름을 설명하는 음양오행론

분할두뇌 이론을 문명사에 적용하여 저술을 한 학자는 제인즈이다. 분할뇌 이론은 1960년대 초에 스페리 박사가 내놓은 이론이다. 분할뇌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두뇌는 좌뇌기능과 우뇌기능으로 분할돼 있으며 양쪽 뇌는 가운데 뇌량(腦樑)에 의하여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양반구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즉, 좌뇌는 언어로 생각하고, 우뇌는 직접적인 개념(이미지)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좌뇌는

언어와 논리적인 사고를 다루고, 우뇌는 언어로 바꾸기 어려운 패턴을 다룬다. 그래서 우뇌 속에는 마술적, 신비적 상징들로 가득 차 있다.

학자들은 뇌의 좌반구와 우반구의 특징을 바탕으로 인류의 문명을 설명하고 있다. 송준만 교수는 좌뇌는 언어적, 수학적, 분석적, 이성적, 합리적, 직선적, 연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뇌는 비언어적, 예술적, 종합적, 감성적, 직관적, 초월적, 비직선적, 비이성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였고 뇌의 좌우반구는 거시적으로 서양문명과 동양문명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⁶⁾ 확실히 우뇌의 특징인 전체를 관조하고 초월을 지향했던 동양에서는 종교가 출현하였고 좌뇌의 특징인 합리적, 이성적인 사고를 가졌던 서양에서는 과학이 발전하였다.

필자는 우리의 음양오행론을 가지고 동서양의 문명전개를 설명한다면 이들 이상으로 더욱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론으로서 간단히 설명해보면 동양은 양에 속하고 서양은 음에 속하니 양에 속하는 정신세계의 신비는 동양에서 수수께끼를 풀었고 음에 속하는 물질세계의 신비는 서양에서 수수께끼를 풀었으며 양속에도 음양이 있어 동양에서도 과학문명이 서양에 앞서 발전한 것이 많았고 음속에서도 음양이 있으니 서양에서도 철학이 일찍부터 발달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음과 양은 고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 동서문명도 교류하면서 발전을 거듭하니 지금 동서는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서양은 동양의 신비주의에 눈길을 돌리고 동양은 물질의 풍요를 좇아 서구의 과학문명을 받아들이는데 애쓰고 있다.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만능키(master key)와 같은 존재이므로 뇌의 구조도 좌우 뇌의 음양 구분 뿐만 아니라 뇌량(腦樑)을 土에 配定한다면 더욱 다양한 설명을 시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서양의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연설명한 것이 거니와 음양오행원리, 하도와 낙서, 복희팔괘, 문왕팔괘, 정역팔괘 등으로 인류 문명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 낼 수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만 줄인다.

7. 음양오행론의 현대 과학에서의 응용

지금의 인류는 과학기술문명의 진보와 더불어 이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고도의 문명 생활을 누리고 있다. 문명이란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사회조직적인 발전을 말하는 것으로 미개와 대응하는 진보된 인간 생활의 총체를 말한다. 현대문명의 최첨단에는 디지털 문명이 자리잡고 있다. 디지털이란 말은 데이터를 수치로 바꾸어 처리하거나 숫자로 나타내는 일로써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0과 1을 이용한 이진법체계를 응용하고 있다. 0과 1은 동양에서 음양을 대표하는 숫자로서 현대의 디지털 문명이 동양의 철학인 음양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를 비롯한 오늘날의 디지털 문명의 바탕인 이진법의 탄생이 동양의 음양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진법의 기원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진법을 고안한 라이프니츠는 당시 중국에 있던 선교사 부베와의 서신을 통해 복희 64괘의 方位圖와 次序圖를 얻었다. 그는 이를 다년간 연구하여 자신이 개발한 이진법이 64괘의 구성원리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그는 음효는 0으로 보고 양효는 1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의 圖象에 대입하여 0에서 63에 이르는 이진법의 수학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는 1701년 “역경패효와 이진법수학의 동일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진법이 수학에 새로운 광명을 열어줄 것을 확신하였다. 동양 우주론의 심오함에 눈뜬 그는 부베에게 보낸 서신에서 복희씨에 대해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

“복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이자 동양과학의 창립자이다. 이 역의 그림은 현존하는 과학의 가장 오래된 기념물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이진법 수학은 세계에서 정식승인을 받게 되었고 오늘날 디지털 문명을 여는 초석이 되었다.

아인슈타인(A. Einstein, 1879~1955)은 1953년에

6) 김상원, 동북아 문명충돌론으로 본 탁본대전, 치우학회, 2002. pp. 28-30.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산마티오에 살고 있는 스위처(J. E. Switzer)에게 보내는 편지의 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럽 과학의 발전은 두 가지의 위대한 성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 즉 그리스의 철학자가(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볼 수 있는) 형식논리의 체계를 발명했다는 것, 그리고(르네상스 시기에) 계통적인 실험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내가 보는 한 중국의 賢哲들은 이 두 가지 길을 걷지 않은 것 같으나, 그것은 오히려 놀랄 일이 아니었다. 놀라운 것은 중국에서는 그러한 것의 발견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일이다.”⁷⁾

양자역학이 대두되면서 하이젠베르크나 닐스 보아 같은 대가들이 인도철학, 불교, 도교 등에 관해 공부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양자역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닐스 보아는 역경을 보고 양성자(+), 전자(-) 그리고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모형을 발표했다. 그는 중국을 방문하여 주역의 태극문양에 큰 감명을 받고 돌아와 덴마크에서 후작작위를 받을 때 태극휘장을 붙인 예복을 입고 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인으로 최초의 노벨상을 받은 유가와 히데키는 음양사상에서 중간자 발견의 힌트를 얻었다고 했으며 프리츠프 카프라가 지은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The Tao of physics)은 전세계 50여개국에 번역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80년대 국내에도 소개되어 기계론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발전한 서양 문명이 동양의 직관보다 우수하다는 편견을 바로잡았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음양오행론을 위시한 동양의 사상은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오히려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현대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이론이 되리라 확신한다.

지금의 시대는 동서의 문명이 통합되어 조화를 이루고 상생의 발전을 모색하는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동양의 사상은 전체를 보는 직관과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 우주변화의 질서와 인간의 수수께끼를 설명하기 위하여 음양오행론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서세동점(西勢東漸)하는 시운을 맞이하여 몸만 동양사람이 되고 교육과 사고는 서양화되어 우리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지 못하고 서양의 과학문명과 물질문명 속으로 흡수되고 말았다.

그러나 서양의 어떤 철학도 과학도 우주와 인간과 만물의 변화를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없다. 동양의 음양오행론에 필적할만한 철학과 논리가 없는 것이다. 음양오행론을 비롯한 동양의 사상들은 역설적으로 과학의 진보와 더불어 그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컴퓨터와 디지털 혁명으로 대표되는 현대의 문명은 음양론에 바탕을 둔 2진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아인슈타인, 유가와히데키, 닐스보아, 카프라 등은 동양사상의 위대성을 인정하였고 여기서 영감을 받아 그들의 위대한 과학적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음양오행론은 마멸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이다. 이 이론의 가치와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이론에 대하여 무슨 평가를 내리던지간에 이 이론은 자연과 인간의 본질을 해석하고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그 참다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의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과학적인 현상을 해석하며 과학적인 규율을 탐구하는 절대이론으로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게 될 것이다.

※ 參考文獻

<단행본>

1. 윤창열, 의철학. 대전. 주민출판사. 2005.
2. 김상일, 동북아 문명충돌론으로 본 탁론대

7) 김일근의 공역, 역으로 본 현대과학,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p. 24-25.

- 전. 치우학회. 2002.
3. 김홍경 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서울. 신지서원. 1993.
 4. 김일곤외 공역. 역으로 본 현대과학. 서울. 여강출판사. 1992.
 5. 강호등심교. 금고문 상서전역. 중국. 귀주인민출판사. 1991.
 6. 산둥중의학원등교석. 황제내경소문교석 하책.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2.